



글이 먹고파요(Hunger for Words)

글 페터 스베틀나(Peter Svetina)

번역 김서정

내가 사는 곳에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관목 숲의 잎이 푸르러지는데, 곧이어 나비 고치가 다닥다닥 붙습니다. 목화솜 뭉치나 솜사탕처럼 보이지요. 애벌레들이 이파리를 어찌나 왕성하게 먹어치웠는지, 숲은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보입니다. 껍질에서 벗어난 나비들은 날아가 버리지만, 숲은 황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름 무렵이면 다시 푸르러진답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요.

이것은 작가의 초상이고 시인의 초상입니다. 시와 이야기는 작가를 거의 먹어 치우다시피 쥐어짜니다. 그러고는 하늘하늘 날아가서 책이 되고, 독자를 만나지요. 이런 일은 언제나,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 뒤 그 시와 이야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아는 아이 중에 눈 수술을 받은 남자애가 있습니다. 수술 뒤 두 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했지요. 그런 다음에도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다음 마침내 책을 집어든 아이는, 마치 그릇 속에 담긴 글들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글을 먹는 것처럼요. 실제로 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한 여자 아이는 커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지 않은 아이는 빈곤층이 되어 굶주립니다. 시와 이야기 속의 언어들은 음식과 마찬가지로요. 몸을 위한 음식, 위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음식, 영혼을 채우는 음식 말이에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사람은 위가 줄어들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을 찾게 되지요. 빵, 밥, 옥수수, 바나나, 물고기 같은 걸요. 배가 고프면 고프수록 그들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뱃속을 채워줄 음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단어를 향한 배고픔의 증상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울해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런 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은 채 마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니까요. 세상 한 부분이 자신을 떨어뜨려 놓은 채 획획 지나가버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배고픔은 시와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글을 마음껏 누리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남자애는 거의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자라서 선생님이 된 여자애는 자기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요.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걸 잊은 날에는 학생들이 졸랐답니다. 그럼 시인과 작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오면 그들은 다시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와 이야기를 쓰느라 자기 자신을 쥐어짜겠지요. 그렇게 탄생한 시와 이야기는 온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요.